

# ‘되돌아보기’ 소설에 감춰진 의미

거대담론 기피하는 문학시장...현재 끌어안는 긴장감 있어야

손경목  
문학평론가

다른 어떤 문학 갈래보다 소설은 시간에 묶여 있다. 대표적인 서사 갈래이기 때문이다. 시간의 흐름과 그것에 대한 언어적 인식 위에서만 성립되는 행위가 서사이다. 소설은 인간이 홀로 또는 무리지어 겪는 시간체험의 구체적인 묘사와 의미화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닐지 모른다. 시간이 과거·현재·미래의 세 갈래 길로 뻗어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해서 소설의 중심 시제를 마련할지는 말할 것 없이 작가의 자유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시제 선택의 방식이 곧잘 동질성을 띤 하나의 흐름을 이루곤 하는 것을 본다. 여기서 흥미롭게 관찰된 것은 근래 씌어지는 소설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현재 혹은 미래보다 과거에 눈길을 주고 있는 현상이다.

## 사회역사성 지닌 주제 드물어

90년대 초입부터 활발히 나타나기 시작한 이른바 ‘후일담 소설’에서 그 흐름의 첫매듭을 찾아볼 수 있겠다. ‘80년대 되돌아보기’를 화두 삼고 있었던 한 무리의 소설들은 진보적 사회운동의 이론·실천이 새로운 연대의 문턱에서 맞닥뜨린 역경에 곧장 대응하는 것이었다. 이념적 지표의 상실로 인한 좌절감의 표백과 과거의 찬란한 빛을 되살려 곤경을 돌파하려는 의지 표명을 양면의 얼굴로 지닌 그 후일담 소설들은 특출한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유행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즈음 소설문단의 화제작으로 꼽히는 장편들도 시간적 과거를 지긋이 반추하고 있는 점에서 그들과 얼마쯤 연속성을 드러낸다.

가령 신경숙의 《외딴방》, 김형경의 《세월》, 은희경의 《새의 선물》, 박완서의 《그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방현석의 《십년간》, 권여선의 《푸르른 틈새》 등을 떠올려 볼 만하다. 부분적으로 동시대의 시점이 끼여들기는 하지만, 이들 소설은 1950년대에서 70·80년대에 이르는 과거를 주된 배경으로 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또 하나의 고리는 성장소설이라는 범주이다. 미성숙한 주체가 사회에 입문, 여러가지 시련과 단련을 거쳐 내면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려낸다는 성장소설의 규준을 저마다의 방식

이즈음 소설문단의 화제작으로 꼽히는 작품은 거개가 1950년대에서 70, 80년대에 이르는 과거를 주된 배경으로 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개인의 체험에 충실하면서도 보편적 공감을 만드는 미덕과는 반대로 동시대적 문제의식의 실증 혹은 문화,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나타나는 예도 많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요즈음의 소설들은 동시대적 문제의식의 실증, 지엽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나타나는 예가 많다.

으로 충족시키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열두 살 이후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인공의 반(反)성장소설적 선언을 바탕에 깔고 있는 《새의 선물》도 그런 사정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성장소설은 물론 어느때나 있어 왔다. 인물들의 성숙과 주체적 각성을 다룬다는 것은 모든 문학에 깃들여 있는 관심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주로 젊은 작가들에 의해 과거형 성장소설이 한꺼번에 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배경과 의미를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다.

먼저 과거시제의 우위에 대해서는 작품 밖의 정황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연대의 문학이 즐기차게 발언했던 사회적 정이나 민족·계급 문제같은 강한 인화성을 띤 보편적 쟁점을 찾기 어렵다는, 또는 그렇다고 믿어지는 동시대 현실이 작가들의 시선을 과거로 되돌리게 만드는 한 원인일 수 있다. 여성이나 환경/생태 문제가 있지만, 아직 사회의 전면적 토론품거리로 떠오른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런 종류의 거대담론 일반에 대한 기피증이 작가와 독자 양쪽에 폭넓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90년대 문학시장의 현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름을 든 소설들을 보더라도, 방현석의 《십년간》을 제외하면 사회역사성이 도

드라진 주제를 파고든 작품은 찾기 어렵다. 사회적 쟁점보다 개인이나 가족같은 소집단의 진실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시점이 과거로 돌려지면서 서사의 반경 또한 앞선 시대 문학의 주류에 비해 비좁아진 셈이다.

이것이 퇴행의 징후나 작가들의 소극적인 선택의 결과로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의 《십년간》은 동시대 사회구조의 뿌리를 더듬어보려 한다는 작가의 강한 의욕이 읽히는 경우이다. 그보다 시야를 좁힌 작품들도 작가마다의 준비성 있는 소설전략의 실천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 심리적 억압 기억의 동기

거시적 주제와의 맞씨름을 치열하게 벌였던 80년대 문학이 문제의식에 걸맞는 육체를 빚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떠올린다면, 시야의 폭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미시적이되 구체적인 개체의 경험에 충실하려는 것은 공동의 쟁점이 희미한 시대에 일단 유효한 시도일 수 있을 것이다. 집단논리로 직접 환원되지 않는 개인의 미세한 진실과 인간적 성숙에 초점을 맞춘 이즈음 성장소설들의 배후에는 명시적이든 아니든 그런 구체성 지향이 숨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소설들 가운데 여럿이 작가의 자전적

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될 수 있다. 작가가 이야기거리를 찾으려 할 때, 스스로의 성장체험 만큼 구체성의 감촉을 띠는 소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자전적 성장소설의 작가들이 연령상으로 대부분 30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이와 관계 깊다. 삶의 반환점을 막 돌아나왔다고 여겨지는 시점에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은 자연스럽고 어쩌면 불가피한 자기점검의 몸짓이겠다.

중요한 것은 이 되돌아보기가 수행하는 해방적 기능이다. 최근의 자전적 성장소설들이 어떤 말못할 심리적 억압의 기억과 마주서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억압을 발설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이들 소설의 핵심에 있는 동기의 하나임을 눈치챌 수 있다. 더구나 그 발설의 주체가 우리 사회에서 중첩된 억압의 체험자인 여성화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의 의미는 심중하다. 소설이 사회의 모순을 정공법으로 파고들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억압적 작동원리에 대한 성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 생겨난다.

## 왜소해지려는 총동 경계해야

예컨대 90년대에 나온 성장소설의 가장 빼어난 성취로 생각되는 신경숙의 《외딴방》에서 표면적인 이야기는 여성화자가 공장생

# 미국 노동운동가의 외롭고 처절한 투쟁

《유진 뎀스》를 읽고

방현석 · 소설가

활을 거쳐 소설가가 되기까지의 경과이지만, 그 안에는 억압받고 소외된 자리에서 들여다본 한 시대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인화되어 있다. 6.25때 피난다니던 기억을 되살려낸 박완서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전쟁이 대표하는 논문 목적추구의 원리, 그것에 지배되는 사회의 허황함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해학어린 문체 뒤에 감추고 있다. 두 작품 모두 개인의 체험에 충실하면서도 보편적인 공감의 바탕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덕이 최근 성장소설의 공통된 자질이 아님은 물론이다. 반대로, 회고의 시선 속에서 개체의 경험에 충실하려는 지향이 동시대적 문제의식의 실종 혹은 둔화,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trivialism)으로 나타나는 예를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오늘의 문학이 맞닥뜨리고 있는 위험은 상업주의만이 아니다. 문학 스스로 왜소해지려는 충동 또한 경계하여 마땅한 대상인 것이다. 성장소설들에서뿐 아니라 오늘의 문학에 긴요한 것은 과거와 현재, 미시적 경험과 사회역사적 진실을 함께 끌어안으면서 그들 사이에 풍부한 긴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다. ❖

정형. 잊을 수 없는 시절이 있지. 생각하면 눈시울이 먼저 뜨거워지는 그런 시절 말야.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우리 청년의 10년간, 공장과 거리를 떠돌던 인천, 지금은 지나간 시절이고 떠난 땅의 기억이 그렇지. 우리에게.

다시는, 정말이지 이제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자고 얼마나 맹세를 했어? 꾸어야 할 꿈보다 돌아보아야 할 회한이 더 많은 30대란 얼마나 한심해. 이제야 어제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고, 그런 글을 쓰자고 동업자들은 만나면 말하지.

유진 뎀스의 전기는 악서였어. 지난 시절로 휩쓸려들어가는 나를 어찌할 수가 없었지. 말이 짧아 노동운동이지, 해본 사람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야. 다른 나라 다른 시대의 노동운동가 《유진 뎀스》, 그를 읽으면서 참 심란했어.

노동자의 운명이란 다 그런 것인가. 그래서 노동운동가란 다 비슷한 경험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인가. 이런 대목이 있어. 유진 뎀스가 노동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마주친 상황이야.

“유진은 7시 조금 넘어 회의실에 도착했다. 책상 앞에 매우 젊음은 모습으로 앉아서 의사록을 펼쳤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도착

하기를 행복한 기대감으로 기다렸다.

화부들은 늦었다. 8시가 넘어서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8시 5분에 유진은 시계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리고 8시 10분, 8시 15분이 되자 그는 비로소 난감해지기 시작했다. 8시 30분에 그는 불안해지면서 걱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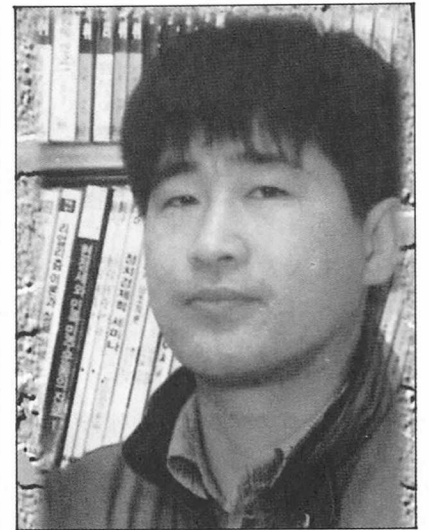
그리고 8시 45분이 돼서야 그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차렸다.”

정형, 지금 틀림없이 쓴 웃음을 베어물고 있을 거야. 유진 뎀스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 화부들은 물론 술집에 있었지. 그가 몸 바치기로 한 노동자들의 현실이 그랬어. 내가 쓴 소설 《십년간》에도 흡사한 장면이 있었지.

사실 나는 이쯤에서 독서를 포기해야 옳았어. 앞길은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아? 그에게 무슨 영화가 있었겠어. 책장을 넘기며 확인해야 할 것은 한 인간의 시련 이외에 무엇이 있었어? 그러나 끝내 덮지 못한 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어. 현실의 무게에 무너지지 않는 이상의 무게를 지닌 사람들 말야. 유진 뎀스가 만났던 수잔 앤소니도 그랬어. 투표권이 없는 여자가 감히 투표를 해버린 여자가 수잔 앤소니야. 그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그녀를 연사로 초청했던 유진 뎀스는 텅 빈 강연장을 확인하고 난감했지.

“청중이 단지 몇 사람뿐이니 연설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시면 그만두셔도 돼요.”

유진 뎀스가 얼마나 당혹스런 표정으로 수잔 앤소니에게 말했는지는 상상이 갈 거야. 정형도 언젠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



었을 테니까. 그런데 수잔 앤소니가 어쨌는지 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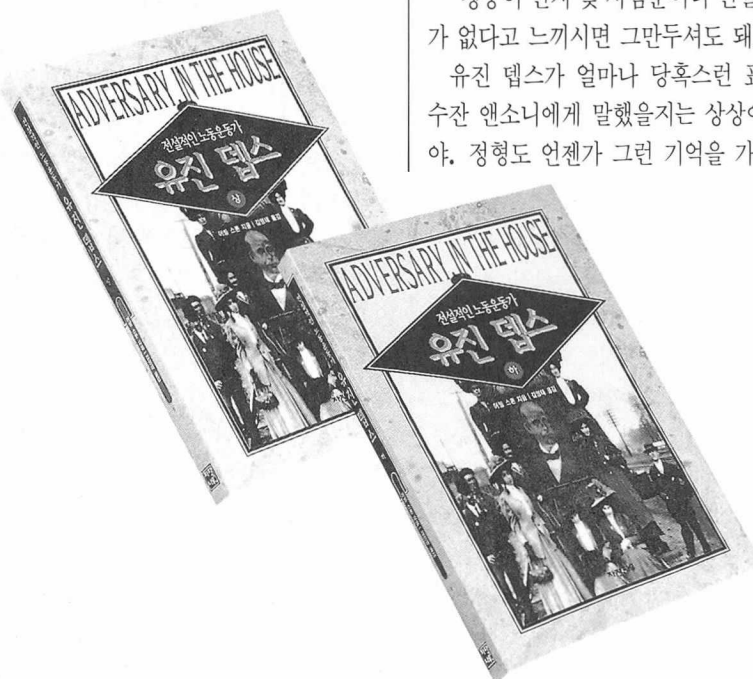
“자네는 내가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나는 강연을 들을 사람이 적다고 강연을 취소했다는 조롱이나 당하려고 밥도 못먹고 옷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폭설 속에 수백마일을 달려오지 않았다는 걸 알잖아? 나는 단지 열명의 청중도 1천명 이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강연할 거야. 만약 앞좌석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자네가 가서 앞줄에 앉게나. 그리고 난 강연을 자네 혼자에게만 하겠어.

유진 뎀스군, 최선의 투쟁 방법은 자네가 혼자일 때이고 돌아갈 곳도 없을 때야.”

유진 뎀스는 그렇게 살았어. 그가 마지막 감옥을 다녀와서 한 이 말이 상투적이지만은 않았어. “하층계급이 있는 이상 나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노동계급이 있는 동안 나도 그들 중의 하나입니다. 감옥에 한 사람이라도 감혀 있는 이상 나는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여전히 최일선에 남아 산별노조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정형과 정형의 벗들에게 세계 최초의 단일 산별노조를 창설했던 그의 삶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어. 행운을 비네. ❖

어빙 스톤 지음/김영태 옮김 (상·하)  
자작나무/A5신/각 320면 내외/각 6800원



## 출판제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분)

30,000원

\* 반년분(11호분)

16,000원